

JTBC의 슬로건인 '다채로운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는 남자, 장성규 아나운서. 올해 벌써 6년차이지만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한다.



“재미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코믹과 진지함 경계 허무는 ‘아나테이너’

장성규 JTBC 아나운서

글 서미희 객원기자(markers@techm.kr) 사진 성혜련

새로운 것 없어 보이는 1인 방송 시장에 장성규 JTBC 아나운서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주목받았다. 방송국 현직 아나운서 최초로 인터넷 1인 방송 BJ에 도전해 이수근, 강호동 등 '방송꾼' 속에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았던 장 아나운서. 스스로를 '관중(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어필함에도 밉지 않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인터넷 1인 방송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 JTBC가 장성규의 '장'과 'JTBC에서 짱 먹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함축시켜 만든 '짱티비씨'가 방영 계획 10개월을 넘어 1년 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장성규' 한 사람의 매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기획, 촬영, 후반집 등의 과정에서 기획 의도와 진행자의 멘트가 적당히 포장되거나 '통편집'되는 게 예사다. '짱티비씨'는 오히려 1인 방송이라는 틀을 통해서 장 아나운서만의 색깔을 전혀 지우지 않았던 게 인기 요인이 됐다.

이름 석 자 걸고 그려낸 인터넷 1인 방송
짱티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만 뷰를 이끌어낸 콘텐츠로 장 아나운서의 1인 채널 크리에이터 도

전기를 다뤘다. 출발은 간단한 대화에서였다.

“당시 인턴PD와 함께 페이스북과 유튜브 형식으로 찍어보자며 들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내부적으로 완성물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채널 개설로 이어졌죠.” 장 아나운서가 짱티비씨 콘텐츠를 만들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든 '해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유일한 실패가 있다면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시도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죠.”

사실 그가 아나운서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다. 또래보다 늦은 대학 입학과 공무원, 회계사를 준비하던 그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는 당시 여자친구 때문이었다.

“공무원과 회계사 모두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죠.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 아니어서였어요. ‘빨리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네가 진짜로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며 저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마주보고 있느라 챙기지 못했던 것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SNS를 할 때 자기 과시나 자랑보다는 재미를 주거나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주로 소소한 일상 등을 올리는데, 그저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 분들에게 작은 의미라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교회 행사도 척척 진행했던 장 아나운서는 '발표할 때 내가 생각한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웃을 때 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떠올렸다. 그리고 곧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받아들였다.

장 아나운서는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 하는지 인생에 한 번쯤은 외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탐색해 봐야 한다”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능감 두각

'장성규'라는 이름이 처음 대중에 알려진 것은 2011년 MBC 예능프로그램 '신입사원'에서다.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한 무렵 MBC에서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4학기가 남은 상태라 방송사 공채를 준비하려면 1년 반을 더 공부해야 했는데 때마침 그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기회다 싶어서 덜컥 지원했죠.”

타고난 방송 감각은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만담꾼 수준의 입담과 재치로 심사위원은 물론 시청자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나 싶었지만 결국 최종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탈락의 쓴맛을 되새기기도 전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주철환 JTBC 본부장이 그에게 손을 내민 것. 이 외에도 각종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한 달여간의 고민 끝에 그는 JTBC를 선택했다.



어릴 때 부터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걸 좋아했던 장성규 아나운서는 '발표할 때 내가 생각한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웃을 때 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떠올렸다. 그리고 곧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받아들였다.

각하고 방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는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인스타그램 최적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SNS를 할 때도 최대한 자기 과시나 자랑보다는 재미를 주거나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아들 하준이와의 소소한 일상 등을 올리지만 단순히 '킬링 타임'이 아닌, 웃기지만 웃고 마는 걸로 끝나지 않을, 팔로워 분들에게 작은 의미라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요.”

장 아나운서는 최근 바쁜 스케줄을 쪼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한 번 연습하면 두 시간 가까이 집중해서 연습한다는 그에게 골프는 생활의 활력소가 됐고, 그가 진행하는 '골프 매거진'에서 더욱 더 생생한 골프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그의 일상이 된 골프 사진이나 영상이 재미있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이 제 포스팅을 보는 순간만이라도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의 말에서 '아나테이너' 이상의 프로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아나운서에서 아나테이너의 길로

장 아나운서가 '아나테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JTBC 1기 아나운서로 시작해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한 장 아나운서는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던 과정과 신입사원 탈락 등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게끔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난 2013년에는 아나운서의 길을 가게 해준 당시의 여자친구와 결혼해 꿈과 사랑을 동시에 얻기도 했다.

SNS는 이름 건 또 다른 프로그램

하루가 쌓여 한 달, 일 년이 되고 그것이 모여 한 사람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이 틀릴 수도 있다. 장 아나운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

'짱티비씨'는 오히려 1인 방송이라는 틀을 통해서 장 아나운서만의 색깔을 전혀 지우지 않았던 게 인기 요인이 됐다.



다양한 주변 사람들 덕분에이다. 아나운서로서의 계기를 만들어줬던 아내는 장 아나운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자 다양한 시도를 묵묵히 응원하는 지원군이다. “아내도 일러스트 창작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개인전도 열었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자극도 되고, 영감을 주고받기도 하죠. 무엇보다 기록이 심한 저를 옆에서 균형 있게 지탱해주는 존재입니다.”

20대와 30대를 옆에서 함께 한 아내는 물론, 방송을 통해 맺은 다양한 인연들은 ‘아나테이너 장성규’를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JTBC 예능 프로그램인 ‘아는형님’에 출연해 예능감을 뽐낼 수 있었던 것도 최창수PD와의 인연 덕분이다. “최 PD께서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조연출로 있을 때 이런저런 요구를 하셨는데 묵묵히 수행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이죠.”

‘장성규’ 콘텐츠의 한계는 어디까지?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에서 개성 있는 아나운서로 출연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한 그는 지난 5월 JTBC 웹드라마에 카메오로 등장, 소녀시대 수영과 호흡을 맞추는 등 연기력도 인정받고 있다. 난다 긴다

하는 개그맨과 연예인 사이에서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얻어낸 예능감은 그저 운이 좋아 얻은 게 아니다. 스케줄 중간 중간, 이동, 녹화 전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출연했던 방송을 복기해 보고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며 ‘매일’의 일상에 충실했던 성실함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다.

“골프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골프 방송 진행이 맡겨졌어요. 이후 골프를 일기 아니라 취미로 즐기게 되면서 골프 생중계도 하게 됐죠. 10년 뒤엔 골프를 주제로 저만의 콘텐츠를 생산해보고 싶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호감 있게 봐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하는 장 아나운서는 “이제 ‘아나운서 장성규’를 넘어 ‘장성규’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콘텐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가 빵 터지는 아나운서, 웃긴 아나운서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운동, 연기, 예능 등 그동안 경험해 온 것들을 녹여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아나운서 최초로
골프 생중계에 도전한
장성규 아나운서는
‘골프 매거진’을 통해
골프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HOT TREND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는 듯 아찔한 경험을 선사하는 VR, 좀비와 20대1로 대치하는 VR... 지난 8월 인천 송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몬스터VR’이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VR 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몬스터VR은 400평 규모에 영화, 게임, 스포츠, 교육, 음악 등 40여 개의 VR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도심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최첨단 놀이시설로 급부상하고 있는 VR 테마파크 현장을 비롯해 분야별로 ‘핫’한 이야기들을 만나본다.